

제주신화월드 대형마트 입점 '가시화' "석주명기념관 건립 국제적 시각 필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신화역사공원 변경안 조건부 통과 상가시설 통합 핵심...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 반영해야

제주신화월드 내에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신화역사공원 내 H지구 등에 대한 투자기업인 탐정제주개발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신청한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단지 내 상가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세

부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2곳에 분산돼 있던 상가시설을 H지구 1곳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인데, 통합 이후 외국계 기업의 참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월드 측은 외국계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계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기정 사실화된 상

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5가지 사항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할 것,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변경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안덕면, 대정읍 지역 농·축협과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며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지역상생' 협의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국내·외 전문가 건립 예정지 현장 답사·간담회 개최 서귀포시, 내년 기념사업 구체화 기본계획 용역 추진



지난달 29일 '석주명 기념사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석주명 선생의 흉상을 찾았다.

'나비 박사' 석주명선생기념관 건립 타당성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귀포시가 내년도 기념사업 구체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주최, 석주명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29일 서귀포시 영천동 소재 나비생태체험관에서 '석주명 기념사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석주명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석창 위원장과 위원인 윤용택 제주대 교수, 김찬수(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이 함께했다. 또한 석주명 선생이 근무(1943~45년)했던 옛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명연구소 제주도 시험장(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을 방문한 신창건 동경이과대학 학장도 참석해 의견

을 나눴다. 신 학장은 어머니가 제주출신으로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연구 권위자이다. 또한 석주명 전문 연구자인 문만용·신동원 전북대 교수, 초대 제주대 아열대농업연구소장(1981년)을 지낸 김형욱 전 제주대 총장, 제주대 부속 식물원장을 지낸 허인옥 전 제주대 교수, 아열대농업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김용호 전 제주감협조합장, 곤충학자인 정세호 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자리해 석주명선생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형욱 전 제주대 총장은 "문화의 범의에는 문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가 전부 포함되며, 특히 석주명 선생이 기여한 생명자원 과학분야 또한 문화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이를 잘 계승한 석주명선생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건 동경이과대학 학장은 "(석주명 선생이 근무했던) 제주도 시험장은 일본에는 없고 제주에만 있는 '디지털리스'라는 식물을 이용해 감심제를 생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 연구소장은 "석주명 선생의 업적은 제주도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기념관은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깊이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만용 전북대 교수도 "석주명 선생의 연구방식은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독특한 연구방식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기념관은 특히 국제적 마인드를 가미해 건립될 수 있을 거다"고 했다.

이석창 위원장은 "지금 큰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940년대 당시 제주의 문화·민속·과학·건축·농업생활 등에 대한 고증과 복원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건립 등 석주명선생 기념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세미나, 워크숍,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승업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석주명기념관, 관사 복원, 나비공원 조성 등 석주명기념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제주도 시험장에 대한 시설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하고 내년 복원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강병삼 제주시장이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시를 방문해 말 산업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미국 '말 수도' 렉싱턴시 방문 소회 "경주마 경매장 보유한 제주에 말 산업 컨트롤타워를"

지난달 17-21일 4박 5일 일정으로 말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 말 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시를 찾았던 강병삼 제주시장이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강 시장의 미국 방문 결과물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말의 사육, 훈련, 경주, 경매 등 말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집적돼 고부가 가치를 창

출하는 렉싱턴시의 좋은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주마 경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말 수도' 제주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고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경주마의 경주 능력 향상을 통한 경주 자원 확보, 상주 인력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보전 등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우리나라 말 산업 컨트롤타워인 한국

마사회 본사가 반드시 제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엔 렉싱턴시 더 서러브레드 센터(The Thoroughbred Center)에서 말 사양관리 프로그램, 마사, 초지 관리 등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인 말 경마장인 파시그 팁턴(Fasig-Tipton), 종마 생산과 교배 전문 목장(Godolphin at Jonabell Farm), 킨랜드(Keeneland) 경기장 등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린다 고튼(Linda Gorton) 렉싱턴시장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말 사양·번식 등 선진 기술 습득, 말 구매를 위한 제주시 경주마 생산 농가의 렉싱턴 방문 시 편의 제공 방안 마련, 캔터키주립대학·경주아카데미와 제주지역 학교 간 인적 교류, 말 사료 개발 공동 연구를 논의하는 등 말 산업은 물론 문화·관광·인적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의 렉싱턴시 방문은 2019년 제주시에서 실무 방문단을 파견해 현지 실태를 파악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렉싱턴시에서 두 차례 초청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하다 올해 현지 방문이 성사됐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설·한파 피해 농가 대상 서귀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는 올해 초大雪·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895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66억21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피해복구 대상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주요 생계수단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895

농가·2725ha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확정했다. 정밀조사, 보험 가입, 주요 생계수단 적격 여부에서 부적합 대상 276농가·262ha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에 따르면 작물별 피해현황은 ▷월동무(2413ha, 88%) ▷양배추(69ha, 3%) ▷브로콜리(63ha, 3%) ▷기타작물(180ha, 6%) 등의 순이다. 또한 33농가·1398군의 양봉(꿀벌)농가 피해도 있었다.

시는 복구 지원 기준에 따라 대파대(78ha, 3%), 농약대(2647ha, 97%) 등을 산정해 지급했다. 농작물 연 피해 지원은 복구 지원 부담률에 따라 대파대인 경우 50%, 농약대는 100%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大雪·한파에 따른 연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예비비)를 신속하게 확보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백금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는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 '시음'의 주의를 받고 '시음'을 받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년 어재할사